

과감했지만 미숙한 새 문학사에의 도전

김재용 외 지음 「한국근대민족문학사」를 읽고

류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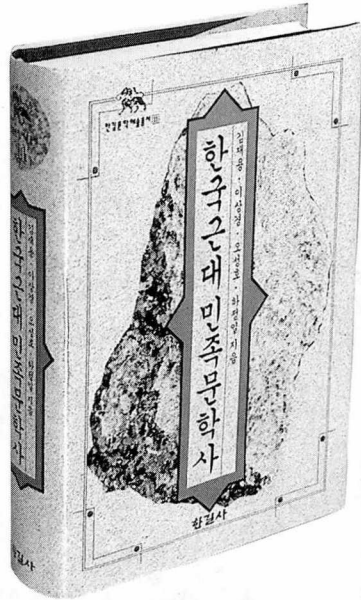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독일문학사」에서 루카치는, 지나간 문학의 고찰이란 단지 역사적 관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독일민족의 운명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표현은 아마도, 문학이란 각 시대 민중들의 삶의 결과 무너를 내밀하게 담아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에, 문학 속에는 자연 각 시대가 그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에 옮겼는가가 담기기 마련이며, 따라서 문학사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학사의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자면, 90년대는 한 권의 문학사가 절실한 시대라 할 수 있다. 흔히 삶의 좌표가 모습을 감춘 시대로 일컬어지는 90년대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다시 본다는 것만큼 긴요한 일은 없으리라. 이를 염두에 두고 씌어진 문학사가 최근 발견되었다. 「한국근대민족문학사」가 그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의 문학사는 단순히 과거의 문학적 사실들을 재확인하고 열거하는 대신, 그것들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장차 분단 극복 이후 씌어질 통일문학사에 대비해야 할 현재적 요구에 비추어 해석하고 기술하려”했다는 표현이 붙어 있다. 문학사를 통해 이 시대의 좌표를 세우려는, 의욕에 찬 문학사가 선보인 셈이다.

이효석 유진오 등은 아예 언급도 안돼

필자들의 의욕은 여러 과감한 시론을 통해 제시된다. 기존에 널리 인정되었던 문학사적 흐름과 평가 대신에 새로운 질서화와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가령 이들은 이제까지의 문학사에서 거의 자리를 잡지 못했던 현상운·양건식·최승구 등의 자리를 분명하게 설정하며, 이기영·한설야·임화·안함광·이운악 등 월북작가를 한국근대문학의 중심으로 격상시킨다. 대신에 김동진·염상섭·채만식·이상·박태원 등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이효석·유진오·이병기·이은상 등의 자리는 아예 지워버렸다. 즉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그때그때의 민족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감싸안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 한국근대문학은 발전해왔으며, 그러한 문학형식이 지금 이곳의 문학이 이어받아야 할 전통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사란 하나의 도전이자 모험일 터이다.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 문학현상을 깎아내고 추스려서 어떤 질서 혹은 법칙성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이미 인정되었던 문학사적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는다면, 그것은 굳이 씌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하기 그지없는 문학현상에 질서와 법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란 필수적이다. 모든 일반화가 그러하듯, 여기에는 우연/필연, 현상/본질, 일시적인 것/영구적인 것, 유한성/무한성의 관계를 그릇되게 결정할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셈이다. 따라서 어떤 문학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적 체계화를 위해 감행한 이 일반화가, 얼마만큼 여러 다양한 문학현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가 하는 점이 살펴져야 할 터이다.

이제 문제는,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서 행한 일반화가 한국근대문학의 성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했는가 하는 점이다. 앞질러 이야기하자면,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근대문학의 특수한 전개양상이 거의 부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근대문학은 영킨 신타래처럼 복잡하게 전개된 바 있다. 이것은 분명 한국근대문학의 주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민족주의를 구두선으로 내걸던 이광수가 친일로 그의 삶을 끝맺거나, 그토록 강렬하게 개성의 해방을 외치던 염상섭·현진건 등이 자연주의로 혹은 리얼리즘으로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그러하다. 사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퇴폐적 낭만주의 세계에 침윤되었던 박영희·이상화 등이 1920년대 중반부터는 계급문학을 내세우고, 사회

어떤 문학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적

체계화를 위해 감행한 일반화가 여러

다양한 문학현상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가 하는 점이

살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일단

부정적이다. 이 책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근대문학의 특수한

전개양상이 거의 부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의라는 불빛을 나침반 삼아 움직이던 경향 작가들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갑자기 전 망상실에 허덕이며, 또 이상·박태원같이 자본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에 반발하는 작가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들이 또 「수호지」를 번안하는 등 예기치 못할 현상이 도처에 산재한 것이 우리 문학사의 퀵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법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는, 따라서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체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임화는 “자기에의 철저한 회귀, 심원한 반성, 깊은 침잠”이 없었던, 즉 “자주정신의 진정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의 특수한 역사(임화, 「개실신문학사」)를 설정한 바 있거니와, 더 나아가 “한국근대문학은 이식문학의 역사”라는 법칙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이전의 문학사에 의해 주목되었던 현상이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서는 새로운 법칙성에 의해 규명되기보다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서는, 여러 문학적 현상과 이념의 부침과정을 추동시킨 내적 동인과 법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또다른 이념을 가진 작가들이 새로이 등장했고, 이들에 의해 한국근대문학사는 한 단계 발전했다는 식의 서술만이 반복된다.

근대성의 내포 불분명해 아쉬움 쭉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저서에서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설정된 근대성의 내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근대’라는 개념이 상황에 따라 자주 다른 내용을 포괄한다. 가령 근대문학의 시발기로 설정된 19

세기말부터 1910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근대적인 문학작품이 산출되었다”는 표현과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도정에 오르지는 못했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타난다. 단지 반제반봉건을 이념으로 할 때만 올바른 근대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근대성이란 봉건적인 계층을 비판하고 제국주의를 경계하는 것만이 그 유일한 내용일 수는 없다. 중세의 전면적인 극복이란, 인간 이외의 다른 질서에 의해 사회를 설명하고 그것을 위해 마법적인 권능을 휘두르는 사유구조를 깨뜨리고,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책임져야 하며 또 세계란 인간에 의해 변화·발전한다는 인식의 확립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주체성과 합리성 등이 근대의 징표로서 말해지는 것은 이 때문일 터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근대성이란 운동이자 정치이며,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자 질곡이라는 역사적 범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주체성은 그 주체성을 움아매는 것과 과감한 투쟁을 벌일 때는 운동의 힘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고립될 때는 질곡으로 자리한다. 또 합리성은 중세를 넘어서는 탈마법화의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의 주체성을 옥죄는 도구적 합리성으로 굳어진다. 그러나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한 시기에 주어진 과제를 모두 정치적인 의미로 환원시킨다. 그리하여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현실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현상운 등의 소설을 주체성의 원리를 작품 전면에 관철시킨 이광수의 「무정」보다 높이 평가하고, 플롯과 시점의 창출을 통하여 사건의 선후적 파악(합리적 인식)의 기초를 마련한 김동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박태원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나는 옳다.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가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믿는다. 이 표현을 빌어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옳다. 이 책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의 곳곳에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열정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저서의 장점을 접어두고 굳이 문제점만을 따져본 것은 바로 이 믿을 때문인지 모른다.